절에서 한문도 배우고 수행도 하고

미황사, 어린이 · 어른 맞춤 여름 템플스테이

템플스테이 우수운영사찰 중 하나인 해남 미황사가 여름을 맞아 어린이 · 어른 맞춤형 템플스테이를 마련했다.

미황사(주지 금강)는 7월 24~31일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7박8일 '미황사 한문학당'을 실시한다. 한문학당은 2000년부터 17년째 이어져오는 미황사 특화 템플스테이로 한문교육과 문화체험 · 산사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특히 한문과 생활지도를 스님들이 직접 맡아 불교에 대한 어린이들의 이해를 돕는 데 효과적이다.

한문학당 참가희망자는 미황사 홈페이지(www.mihwangsa.com)에서 참가신청서를 받아 '20년 후의 나의 모습' '부모의 자녀소개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7월 16일까지, 선착순 45명을 선발한다. 동참금은 30만원.

성인을 대상으로 참나를 찾아가는 참선수행 '참사랑의 향기'는 7월 9~16일 동안 진행된다. 수행형 템플스테이에 걸맞은 참선과 다도, 묵언, 오후불식, 법문, 수행체계 및 지도 등이 이어진다. 참선과 수행지도는 미황사 주지 금강스님과 수련원장 적멸 스님이 직접 실시한다.

참사랑의 향기 참가희망자 역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대중공양비는 50만원. (061)533-3521

윤호섭 기자

케냐에 '생명의 우물'을

공생회, 태양광 모터펌프 건립

케냐에 '생명의 우물' 태양광 모터펌프가 건립됐다.

불교계 국제개발협력NGO 지구촌공생회(이사장 월주)는 5월 31일 케냐 카지아도주 올레로라 마을 태공초등학교에 태양광 모터펌프를 건립했다. 이에 1,400명 마을 주민들은 태양 판넬로 생산된 전기를 통해 시간당 1,500리터의 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지구촌공생회 측은 "펌프가 건립되기 전 마을주민과 아이들은 가축들이 사용하는 웅덩이 물을 마셔야 했고, 오염된 물로 인해 빈번한 수인성 질병에 노출돼 왔다"면서 "특히 이번 모터펌프 건립에는 지역 주민들이 십시일반 850달러를 모아, 플라스틱 물탱크를 구입하는데 기여해 의미를 더했다"고 설명했다.


케냐 카지아도주 올레로라 마을 아이들이 신설된 태양광 모터펌프 앞에서 웃어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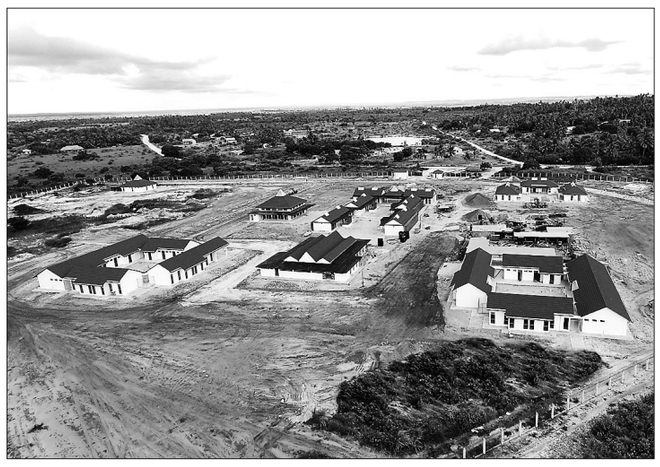
키파스(태공초 · 4년) 학생은 "이제 마음껏 물을 마시고 손과 얼굴을 씻을 수 있다"며 "동물과 함께 사용하는 저수지에 물을 뜨러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 꿈만 같다"고 웃어보였다.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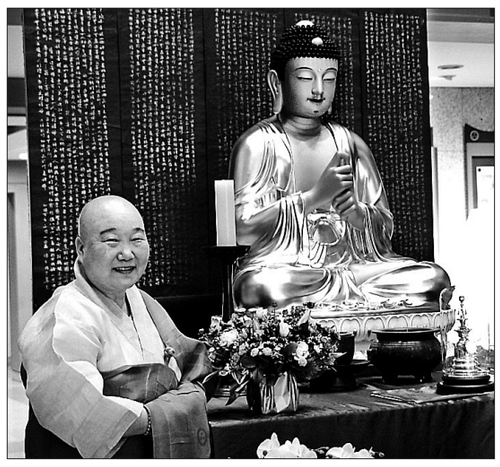

"새 옷이 참 예쁘구나!" 서울 길상사(주지 덕일)는 6월 5일 경내 설법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 개금불사 점안식을 봉행했다. 점안식에는 주지 덕일 스님과 사중스님들, 신도회 및 재가불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윤호섭 기자

부처님 가피로 '메마른 대지' 적시다

탄자니아 보리가람농업기술高 막바지 작업 '한창'


지난 5월 말을 기점으로 완공돼 9월 5일 공식 개교를 앞둔 탄자니아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전경.


광제사 경원 스님(사진)은 보리가람 학교에 모실 부처님 진신사리 3과 및 비로자나불 · 석가모니불, 200여 점의 복장물을 기증했다.

5월 6개 교실 · 2동 기숙사 등 완공 기자재 마련 위해 후원 · 관심 당부 경원 스님, 불상 등 기증해 힘 보태 오는 9월 공식 개교… 전교생 120명

(재)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이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부처님 자비를 전하고자 2년 째 추진해 온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이 드디어 막바지에 이르렀다. 지난 5월 말을 기점으로 교실 6개 및 기숙사 2동(남 · 녀 각 1동씩) 등 총 4만평 부지 학교를 완공, 학교 조경공사와 기자재 확보에 마지막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하드웨어 격인 시설물 건축은 마무리됐다. 책걸상 · 컴퓨터 등 기자재를 확보하는 소프트웨어 구축이 남은 과제"라며 "학교 조경 비용부터 트랙터 및 기숙사 내부 시설물 구비까지 약 5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이에 아름다운동행은 6월 중순을 기점으로 전국 대형사찰에 모금함을 설치, 불자들에게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건립 후원을 독려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12일엔 서울 봉은사에 '1호 모금함'을 설치한 바 있다.

아울러 광제사 경원 스님은 보리가람 학교에 모실 부처님 진신사리 3과(골사리 1과 · 육사리 1과 · 발사리 1과) 및 비로자나불 · 석가모니불, 200여 점의 복장물을 기증해 순풍에 돛을 달았다. 경원 스님의 기증품은 6월 8~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서 전시되며, 14일 부처님 점안식을 봉행한 후 아프리카로 전해질 예정이다.

경원 스님의 이번 기증은 지난해 10월 신도들과 함께 〈화엄경〉 사경기도를 회향하는 고승유묵특별전 '유심전(唯心展)'서 먹색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뵌 것이 계기가 됐다. "일반 불상과 달리 옻칠을 해 먹색인 불상을 보니 '검은 대륙'의 아프리카 아이들이 자꾸 생각났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이후 스님은 아프리카 아이들을 위해 포교하겠단 원력을 세우고, 마침 탄자니아에 학교를 건립 중이던 아름다운동행에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다.

전시회 개막일인 8일 경원 스님은 "불교가 거의 전해지지 않은 아프리카에 인류의 스승인 부처님을 모실 수 있어 기쁘다"며 "탄자니아 아이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는 9월 5일 공식 개교를 앞두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은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교생 120명(학년별 각 60명)만 모집, 장학금 및 기숙사를 전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한국불교 및 문화 등을 전파하기 위해 지난 5월 탄자니아 지부장에 임명된 진공 스님이 직접 나선다.

아름다운동행 측은 "인도서 한국으로 불교가 전해져 한국문화가 융성했듯이 이제 우리가 한국불교를 아프리카에 전하고자 한다"며 "보리가람 농업기술고등학교 학생들이 우수한 교육과정을 통해 가난을 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아름다운동행은 지난해 4월 지진피해를 입은 네팔 어난따링 게솔 지역에도 기술학교 건립을 추진 중이다. 현재 건립 부지를 정부로부터 허가 받아 행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추후 착공 계획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숭고한 희생 군포교로 보답"

군종교구, 6월 3일 현충원서 순직 군승묘역 참배

현직 군승들이 국토방위와 군포교 원력을 바탕으로 국가 · 불교발전에 헌신한 선배들의 영령을 추모했다.

조계종 군종특별교구(교구장 정우)는 6월 3일 서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군복무 중 순직한 군승 故 김수남 중령과 故 이동신 대위 묘역을 참배했다. 참배에는 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해 재경지역 군승 10여 명이 동참했다.

이 자리에서 정우 스님은 "선배 군승들의 숭고한 희생이 대한민국 발전과 군포교 원력으로 전해져 오고 있다"며 순직 군승을 추모했다.

故 김수남 해군 중령은 1985년 12월 4일 근무 중 과로와 지병으로 수도병원에서, 故 이동신 육군 대위는 1984년 12월 6일 강원도 양구 전방 철책근무자 위문 후 복귀 중 차량 전복사고로 순직했다.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과 현직군승들이 6월 3일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순직군승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대전지역 군승 10여 명은 대전 현충원에서 故 김일영 · 조시형 · 양석준 · 이승철 · 이치영 · 최웅호 · 권오성 군승의 묘역을 찾아 추모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천진불도 부처님 사랑해요"

청주 명장사, 제1회 와우백일장 · 사생대회

청원군 통합 이후 도농통합시로 거듭난 청주시의 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명장사가 천진불들의 재능을 뽐내는 축제를 마련했다.

청주 명장사(주지 유정)는 6월 5일 경내에서 제1회 명장사 와우백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청주시를 비롯한 인근지역 어린이와 부모 등 150여 명이 참가했다.

백일장과 사생대회로 나눠 진행된 행사에서 천진불들은 경내 곳곳에서 자유롭게 작품활동을 펼쳤다. 아이들에게 사찰에 대한 친숙함을 전하기 위한 명장사의 배려다. 백일장은 '불교와 명장사', 사생대회는 '명장사 경내 모든 사물과 풍경'을 주제로 진행됐다.

대회에서는 사생대회에 참가한 유호정(나래초 5) 양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5명의 참가자들이 상을 받았다.


명장사 제1회 와우백일장에 참가한 어린이가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고 있다.

명장사 주지 유정 스님은 "문화체험을 통해 아이들 정서와 인성을 발달시키고, 창의성과 독립성을 기르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 행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권위와 전통이 있는 대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근 학교에 협조를 요청하고 상금 규모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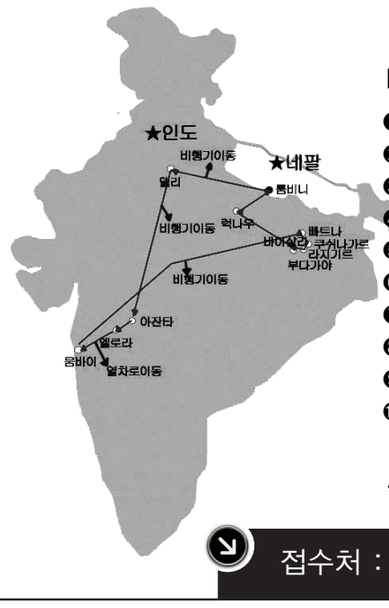
윤호섭 기자

제108차 천룡사 신행기도회 동참 안내

2016년 12월 9일부터 ~ 21일까지 (13일 일정)

천룡사 신행기도회에서는 108번째로 맞이하는 신행기도를 부처님께서 탄생과 출가, 성도와 전법轉法, 열반涅槃에 드신 성지로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갑니다. 108차 신행기도信行祈禱는 천룡사 주지 무등無等 스님과 함께 떠나며 인도印度 아잔타 석굴사원과 엘로라 동굴을 순례하는 거룩한 인연을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천룡사 108차 신행기도회 부처님 나라 성지순례에 함께 하실 분들은 종무실로 접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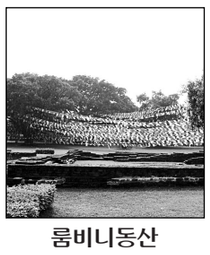
• 신행기도회 예상경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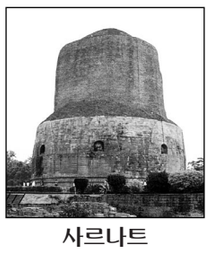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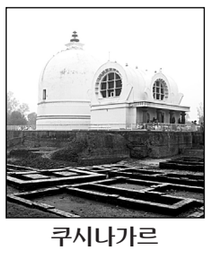
▶성지순례지◀

❶ 룸비니(부처님의 탄생지)
❷ 부다가야(깨달음을 얻으신 곳)
❸ 사르나트(처음 설법하신 곳)
❹ 쿠쉬나가르(열반에 드신 곳)
❺ 라즈기르(왕사성)
❻ 스라바스티(기원정사)
❼ 바이샬리(마지막으로 설법하신 곳)
❽ 상카시아(어머니를 위해 설법하신 곳)
❾ 나란다(불교 최초의 학교)
❿ 피르라화 : 카필라 바스투(사키아)족의 도읍지로 예상

〈인도 국내선 비행기 3회 이용〉


룸비니동산


사르나트


쿠시나가르


부다가야

접수처 : 천룡사 종무실 062)234-1338, 010-8932-1825

선무도 화랑학교

골굴사 청소년 화랑수련회 여름캠프

원효스님의 열반 성지, 신라 화랑들의 기상이 담긴 선무도 총본산 골굴사에서 청소년들의 인성교육과 심신수련을 위한 여름캠프를 개최합니다. 자연속에서 공동체 수행생활을 체험하며, 호연지기를 기르고 몸과 마음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청소년 화랑수련회(49회)에 함께 하세요.

불교강의와 인성교육, 명상과 선무도, 원어민 선생님의 영어강의 등 21세기 새로운 리더로서의 자질을 기를 수 있는 신화랑 캠프입니다.

언 제 2016년 7월 24일~2016년 8월 20일
모집인원 60명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1주간 참가인원을 제한합니다)
매주 일요일 15시까지 입교. 토요일 12시 퇴교
대 상 초등학생 ~ 중학생
(고교생은 평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으로 운영)
준비물 세면도구, 수건, 필기도구, 운동복, 운동화, 우산
(현금, 휴대폰, MP3 휴대 금지)

수련회비 1주-35만원 / 2주-70만원 / 3주-90만원 / 4주-110만원
(교재비 포함이며 수련비를 입금하셔야 예약이 확정됩니다.)
☞ 국민은행 823301-01-476572
(예금주 : 대한불교조계종 골굴사)
예약·문의 054-775-1689 / 744-1689
www.sunmudo.com
♣ 수료식은 골굴사 선무도 대학에서 토요일 11시에 합니다.



◉ 기본 프로그램 : 선무도, 승마, 국궁, 다도, 민요, 불교강의, 108배
◉ 영어캠프 : 선무도를 수행하는 원어민 자원봉사자와 함께 하는 영어캠프
◉ 부모님께 효도마사지 실습 및 예절교육, 심폐소생술 등 안전교육
◉ 매주 색다른 생태순례 : 감포깍지길 걷기 / 토함산 풍차마루 트래킹 / 벽화마을주상절리길 / 박물관 및 경주문화유산탐방
◉ 자아성찰 : 자비관 명상, 자자회, 자기바라보기

1500년 전통사찰 · 연간 외국인 7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템플스테이 도량!!
대한불교조계종 11교구 골굴사 · 선무도 화랑학교